

주요종단총무원장 신년사

원융바탕 상생·평화시대 열기를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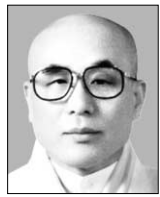
의 밝은 길로 가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안의 지혜를 밝히고 부단히 닦아 나가야 합니다. 새해에는 저마다 마음과 함께 하여 화합과 희망의 공동체를 구현해 나가는데 한 마음으로 협력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에 우리 2천만 불자와 국민들은 불이와 원융사상으로 화해와 대화, 그리고 협력을 통한 상생과 평화의 시대를 열어가야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증생계의 고통과 업보 윤회가 모두 자기 마음에서 빚어진 것이라 하셨습니다. 화합과 협력

믿는사회 되도록 의식전환 필요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스님



의 의식전환이 필요합니다. 마음이 새로워지면 그 세계 또한 새로워지므로 우리는 아집과 내 이익만을 추구한 이기심을 참회하고 이제부터 모두 자리타의 보살정신을 발휘하고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새해에는 국제사회는 물론 우리 민족과 국가에도 많은 변화의 물결이 예상되고 새로운 질서가 요구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이제 자기의 직분에 맞게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언행이 일치하는 신뢰의 사회가 되도록 새로운 사고

각자 처한 위치에서 불법 실천해야

천태종 총무원장 운덕스님



바람으로 사람이 사람답게 행동하고 대접받는 사회가 바로 정토세계입니다. 이를 위해 각자가 처한 위치에서 그동안 배우고 닦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데 최선을 다하십시오.

세상을 고통의 바다로 만드는 근원은 탐·진·치 삼독심입니다. 탐내고, 성내며, 어리석은 그 마음을 잘 다스려 남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전한시킴으로써 부처님의 동체대비 정신을 온전히 실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동체대비 정신을

중단없는 수행으로 새 날 시작

진각종총무원장 효암대정사



정체성을 선명하게 하겠습니다. 또한 올해는 창종 100년을 향한 장기적인 정책사업들의 첫 성단을 세우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중단 없는 수행과 실천만이 새날을 여는 시작이고 끝입니다.

앞으로 종단발전의 핵심은 '진각종의 대중화'에 있습니다. 일반 대중들이 보다 쉽고, 즐겁게 심인진리와 만나서 편안하게 불법을 알게 하도록, 다양한 모델을 연구하겠습니다. 그러한 방법들이 생명력 있도록 교법과 교학을 체계화시키고, 종단의

참다운 '내 주인공' 찾는 해서원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스님



공'을 찾아야 합니다. 불자들은 계미년에도 큰 서원을 세워 참생명의 주인공으로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 청정한 영식(靈識)이 뚜렷하게 밝아지고 망상의 늪에 빠지지 않고 깨달음의 삶을 영위하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선상에서 새로운 생각을 합시다. '한마음의 주인공'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하면 우리는 한평생 허망한 마음으로 방황과 번뇌의 사슬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업의 굴레에서 윤회하게 됩니다. 우리는 현재에 살고 있는 현재의 '참다운 나의 주인

어린이포교 '청신호'

대불어 '연꽃' 지 도서벽지등 전국에 무료배포

어린이포교에 청신호가 켜졌다.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회장 정여, 대불어)가 '연꽃' 지 무가지 전자책, 플래시 애니메이션 제작 등 어린이포교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발표해 기대를 높이고 있는 것. 대불어는 올해부터 어린이 교화를 목적으로 20년 전 만들어졌던 교계 유일의 어린이법회용 교재 및 어린이용 불교잡지였던 '연꽃' 지를 무가지로 전환, 도서 벽지, 군법당 등 전국에 무료로 배포한다. 일부 구독자나 유관단체, 후원자에 게만 발송되던 '연꽃'이 온라인을 통해 동시 보급되면서 주별 설법, 교리, 찬불가, 연꽃 만화 등의 내용을 담아 어린이 법회를 보는 곳이면 어디든 보내진다. 현재 40쪽 분량으로 3500부 발행되던 '연꽃'은, 16쪽 컬러 1만부로 늘려 전국의 어린이 법회 현장 구성구색에서 어린이법회 활성화를 알리는 청신호로 불을 밝히게 된 것이다.

'연꽃' 무료 배포로 밝혀진 청신호는 온라인에도 이어진다. 대불어는 교사들을 위한 법회 지침서 '동련'을 인터넷을 통한 자료제공으로 변화시켜 비용 절감 효과와 함께 대불어 회원 모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배려한다. 1월부터 각 지역의 소식과 법회 자료를 홈페이지(www.dongja.org)에 공개함으로써, 지역별 유대관계 확대와 불교잡지였던 '연꽃' 지를 무가지로 전환, 도서 벽지, 군법당 등 전국에 무료로 배포한다. 특히 초등학교 교과과정에 나타난 불교소재를 활용한 지도자 지침서 제작 등의 사업을 내놓았다. 또한 영상 세대를 겨냥한 플래시 애니메이션 제작과 정보화 사업도 비중을 대폭 높였다. 현재 본생경에 나오는 이야기 중 '대답하는 바위' '황금거위의 깃털' '사냥꾼의 출가인연' 등을 선보이고 있는 플래시 애니메이션은 앞으로 '연꽃' 지와 연계 매월 시리즈별 제작 업그레이드시켜 불교

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정보화시대에 맞춘 다양한 계층 포교를 위해 회원자료실, 데이터 은행, 회원관리 프로그램, 어린이 총림, 연꽃기자, 연꽃VJ 등의 세부적인 정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배려한다. 이 외에도 어린이지도자연수회, 법회현황조사, 초등학교 교과과정에 나타난 불교소재를 활용한 지도자를 위한 지침서 제작 등의 사업을 내놓았다. 특히 초등학교 교과과정에 나타난 불교소재를 활용한 지도자 지침서는 7차 교육과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법회 현장과 학교교육의 자연스런 연계를 가져와 교육 효율화에도 기여하게 된다. 이에 따라 대불어는 신년 사업계획과 함께 어린이 포교에 대한 스님과 불자들의 관심을 이끌어 내기 위한 어린이포교후원회 결성을 서두르고 있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nia.com

영상세대 겨냥 애니메이션 제작

지도자 지침서 제작, 후원회도 결성

마리 토끼를 집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영상 세대를 겨냥한 플래시 애니메이션 제작과 정보화 사업도 비중을 대폭 높였다. 현재 본생경에 나오는 이야기 중 '대답하는 바위' '황금거위의 깃털' '사냥꾼의 출가인연' 등을 선보이고 있는 플래시 애니메이션은 앞으로 '연꽃' 지와 연계 매월 시리즈별 제작 업그레이드시켜 불교

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정보화시대에 맞춘 다양한 계층 포교를 위해 회원자료실, 데이터 은행, 회원관리 프로그램, 어린이 총림, 연꽃기자, 연꽃VJ 등의 세부적인 정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배려한다. 이 외에도 어린이지도자연수회, 법회현황조사, 초등학교 교과과정에 나타난 불교소재를 활용한 지도자를 위한 지침서 제작 등의 사업을 내놓았다. 특히 초등학교 교과과정에 나타난 불교소재를 활용한 지도자 지침서는 7차 교육과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법회 현장과 학교교육의 자연스런 연계를 가져와 교육 효율화에도 기여하게 된다. 이에 따라 대불어는 신년 사업계획과 함께 어린이 포교에 대한 스님과 불자들의 관심을 이끌어 내기 위한 어린이포교후원회 결성을 서두르고 있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nia.com

"국민대통합 종교인이 앞장"

조계사 청년회, 10대종교 성직자 초청법회

"21세기 화두는 종교인들이 공존하며 화합과 상생의 길을 찾는 일입니다."

기독교 최대 명절인 성탄절 전야, 연인들이 손을 마주 잡고 성당이나 교회로 모이던 시각.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는 청년 불자들과 수녀들이 손을 마주 잡았다.

이런 이색적인 자리는 조계사청년회 회원들이 국민대통합에 종교인들이 먼저 앞장서는 모습을 보이고자

벌 살리기 운동, 북한산 관동도로 반대 운동에 뜻을 함께 해 온 인물이다. 오 수녀가 가져 온 화제는 "종교를 떠나 한 생명이 지구공동체 문제 해결에 나서자"는 것이었다. 그는 "생태계를 살리고 어렵고 힘든 이웃을 돕는 일에 종교의 차이는 상관이 없다"고 강조하자, 평소 북한산 살리기에 많은 관심을 쏟았던 조계사 청년회 회원들도 큰 박수로 화답했다. 이웃의 아픔을 알고 자연을 살리며

10월까지 매달...오영숙 수녀 첫 강연

마련한 이벤트. 조계사청년회는 이날부터 오는 10월까지 매달 가톨릭, 개신교, 원불교를 비롯해 이슬람, 힌두교 등 10대 종교의 성직자들을 초청, 상대 종교를 배우는 법회를 열 예정이다.

이날은 처음으로 가톨릭수녀회 오영숙(테레사) 수녀가 조계사를 방문했다. 오 수녀는 암 투병과정의 고통스런 상황에서도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수경스님,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의 문규현 신부와 함께 새만금 갯

바르게 사는데는 불자, 가톨릭 신도, 이슬람 신자가 따로 없기 때문이다. 참석자들은 "지역과 세대간 갈등이 다소 드러난 대선이 끝난 지금은, 대화를 통해 이웃 종교를 배우고 서로 화합해 우리 사회의 당면 문제를 풀어야 할 때"라며 "조계사 대웅전에서 시작된 아름다운 화합의 목소리가 시민들에게 참된 법음(法音)과 복음(福音)이 되길 기원한다"고 입을 모았다. 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nia.com

"주민투표 전 환경영향평가 실시하라"

조계종환경위등 미륵산케이블카 반대 한목소리

조계종 환경위원회, 사찰생태연구소 등 불교계에서 통영시가 강행하고 있는 미륵산 케이블카 건설사업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단체들은 성명서에서 "통영시가 미륵산케이블카 건설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불교계와 환경단체의 우려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토지수용과 주민투표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환경부가 삭도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케이블카 건설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조사를 진행중이라는 상황에서 미륵산 파괴와 사찰수행환경 파괴에 대한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공사강행과 토지수용을 추진

하는 것은 불교에 대한 탄압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통영시는 국비지원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주민투표 실시 이전에 미륵산 케이블카와 관련한 모든 우려사항에 대한 정확한 정보공개와 함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동우 기자

서울시에 납부해야만 내년 1월경 서울시와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서울시는 계약이 체결된 뒤 2년 이내에 공사에 들어가 5년내에 완공할 계획이다. 불교방송의 한 관계자는 "10일내에 매매대금의 10%를 납입해야하고 공사가 시작되면 2년내에 300억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불교방송 이사회는 12월 17일 열린 이사회에서 디지털미디어시티 입주에 관한 사업을 적극 추진기로 결의했다. 김두식 기자

불교방송 DMC 입주 업체 선정

이달 계약, 5년내 완공 계획

불교방송이 상암동 디지털미디어 시티(DMC) 입주 업체로 선정됐다. 서울시는 상암동 디지털미디어 시티(DMC)내 3만2천276㎡(9천700여평) 규모의 권장유치시설에 입주할 업체로 불교방송, 팬택, 코디콤, KBS미디어, 매일경제TV, 한독산학단지 등 6개 업체를 선정했다고 12월 24일 밝혔다.

권장유치시설은 벤처시설용지(2만3201㎡)와 입주기업용지(1만4649㎡), 외국기업용지(9490㎡) 등 3개부지로 불교방송은 이 가운데 입주기업용지의 땅 1433평(4733㎡)을 127억여원에 분양받게 된다. 이에 따라 불교방송은 10일 이내에 매매대금의 10%인 12억여원정도를

목탁소리

남동우 (취재1부 기자)

수자원공사가 댐 설명회를 위해 마천지역 주민들에게 버스 등 편의시설을 제공해 댐 건설을 위한 물밀작업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사건은 12월 23일 경남 함양군 마천, 유림, 휴천면 주민 140여명이 지리산댐(마천댐) 설명회에 가면서 시작됐다. 문제는 버스와 짐

개와 함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동우 기자

사건은 12월 23일 경남 함양군 마천, 유림, 휴천면 주민 140여명이 지리산댐(마천댐) 설명회에 가면서 시작됐다. 문제는 버스와 짐개와 함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동우 기자

사건은 12월 23일 경남 함양군 마천, 유림, 휴천면 주민 140여명이 지리산댐(마천댐) 설명회에 가면서 시작됐다. 문제는 버스와 짐개와 함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동우 기자

사건은 12월 23일 경남 함양군 마천, 유림, 휴천면 주민 140여명이 지리산댐(마천댐) 설명회에 가면서 시작됐다. 문제는 버스와 짐개와 함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동우 기자

사건은 12월 23일 경남 함양군 마천, 유림, 휴천면 주민 140여명이 지리산댐(마천댐) 설명회에 가면서 시작됐다. 문제는 버스와 짐개와 함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동우 기자

댐건설 사전작업?

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김경일 지리산생명연대 사무처장은 "마천면발전협의회는 당초 지리산댐건설추진위원회였다가 지역의 반대 여론이 거세져 발전협의회로 이름만 바꾼 단체"라고 지적하고 "수자원공사의 경비지원은 댐 건설을 위한 물밀작업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옛말에 오이밭에서 신을 고쳐심 제공 등 경비 일체를 수자원공사 측이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불거졌다. 특히 댐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사전에 준비한 수물지역

진안군 정천면 농협 인종구 조합장과의 대화도 '공식 일정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마천면발전협의회측이 제지해 댐 건설 추진을 위한 사전작업이 아니었느냐는 의구심을 자아냈다.

이와 관련 수자원공사 댐환경저감기회 과장은 "경비부담은 마천면발전협의회측의 요구로 이뤄졌다"고 말하고 "경비는 수자원공사에 책정되어 있는 홍보비의 일할" 충분하다.

